

2020.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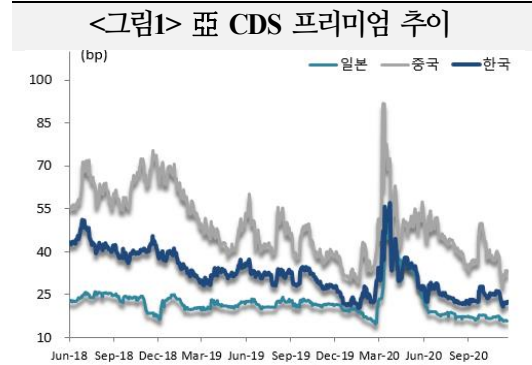
美 정권 이양 호재, 백신 기대 등으로 가산금리 하락

장원영 | 책임연구원(3705-6155)

- [유통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협조를 지시하면서 미국의 정권이양 관련 불확실성 감소와 코로나 백신의 조기보급에 대한 기대, 재닛 옐런의 재무장관 내정 영향 등에 쏠 크레딧물 가산금리 및 CDS는 하락

- 2차 크레딧물 가산금리 : IG, HY하락 (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0.7bp, HY -36.2bp)

- 한국물 가산금리도 하락(-4bp~0bp)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권 이양 관련 시장리스크가 감소. 아울러 차기 재무장관으로 완화 정책에 우호적인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내정함에 따라 미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추진이 예상되면서 S&P와 나스닥은 11.27일 종가



자료: KCIF, Bloomberg

-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난주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자산 선호 양상을 보임
- 또한 연말 쇼핑 시즌 소비증가와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전환 기대, 12월 12일 미예산안에 대한 초기 합의로 연방정부 섰다운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지지

- 2차 CDS 하락 : 일본 -0.1bp, 중국 -3.0bp, 한국 -1.4bp, 말련 -3.2bp, 태국 -2.3bp, 베트남 -7.3bp, 인니 -6.9bp, 필리핀 -3.9bp

- [발행시장] 11월 넷째주 2차 달러채(ex-Japan)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23억 발행 (11월 셋째주 \$60억 발행)

- 11월 넷째주는 미국 추수감사절 등 영향으로 전 주에 이어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IG 1건, HY 4건, 신용등급 미부여 1건). 크리스마스, 신년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발행이 향후 2주간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발행사들이 미대선 이전에 발행을 마침에 따라 연말까지 발행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JP Morgan)

<표 1> 주요 2차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

발행기관	종류	신용등급	발행일	만기年	통화	발행액\$	발행금리	주문\$	비고
Dexin China Holdings	RegS	B3	20/11/26	22/12/3	USD	2	11.75	-	-

<표 2> 한국계 가산금리

	발행액	만기	'19년말	11/20일	11/27일
외평채'29	10	6/19/2029	47	42	38
산업은행'24	5	10/1/2024	51	44	42
국민은행AT1	5	7/2/2024(1st call)	206	255	253
한국서부발전'22	3	7/22/2022	59	46	45
한국전력공사'24	5	6/24/2024	68	59	59

<표 3> 2차 주요국 CDS

	'19년말	11/20일	11/27일
한국	22	23	21
일본	20	16	16
중국	31	33	30
태국	23	38	36
인니	62	79	73

자료: KCIF 등. 단위: 각 통화 억, bp

- [미국 IG 발행시장] 11월 넷째주 IG발행시장은 전주 대비 감소한 총 \$3억 발행(전주 \$470억)

- 11월 넷째주 발행시장은 전주에 이미 470억불 규모의 발행이 완료되었으며,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영향으로 거의 발행이 이뤄지지 않음. 연말 전까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발행사들이 이번 주에 주로 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주는 100~150억불, 12월 전체는 약 250억불 발행 전망(Bloomberg)